

“평범에서 비범으로”

고린도전서 1:26-31

예수님께서 세우신 열두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처럼 똑똑하고 사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었을텐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자신들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그들이 어떻게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평범에서 비범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소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7-28)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택함’이기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 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으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

소명(Calling)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 40 년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something) 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 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nothing)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 년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권능자(everything)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nothing 이 everything 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27)

세상의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 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태신앙이었고 율법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비로소 진정한 소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3-14)

그에게 주신 꾀대, 그 부름의 상이 그에게는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명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의 인생, 즉 평범에서 비범으로의 삶을 살게한 원동력이 된것입니다.

둘째, 주님으로부터 새이름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 1:42)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성급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예수님께 죽어

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선 얼마 있지 못해 세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예수님은 반석과 같이 흔들림없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반석)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평범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날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께서 전면에서 나셨던 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2)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2:3)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 넘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평범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역사에 기록될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는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워싱턴성광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만약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긴다면, 어떤 이름을 갖고 싶은가요? 그 이름을 갖고 싶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의 이름도 좋고, 일반적인 이름도 좋습니다.
2. 오늘 설교에서는, '소명'(Calling)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러 주시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설교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몇몇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스테반)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충만할 때의 기분이나 감정은 어떠한지, 어떻게 성령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등)